

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 브릿지경제

## 남해관광문화재단-해남문화관광재단, 지역 관광·문화 교류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호남 잇는 남해안 관광의 핵심지역 ‘맞손’  
생활관광 활성화·위케이션 상품 판매 등 교류 사업 기대

정도정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3-04-06 12:59



남해관광문화재단과 해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 4일 해남모아 플랫폼에서 지역 관광·문화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해군 제공.

남해관광문화재단과 해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 4일 해남모아 플랫폼에서 지역 관광·문화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관광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강화에 나서기로 하고 양 지역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관광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지역민들의 관광·문화 향유 기회 증대, 관광·문화 정책 및 사업 관련 정보 공유 및 활용, 관광·문화 행사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홍보, 상생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및 협력 등을 약속했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사업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지역관광 정책

에 관한 정보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각 지역의 DMO 사업과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기관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동반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양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워케이션 트렌드를 활용한 관계인구 유치사업을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각 지역의 매력을 담은 워케이션 상품을 구성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지 해남과 관광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체부 공모사업과 워케이션 사업 공동 추진 등 양 기관이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역관광의 대외 협력네트워크를 강조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동·남해·사천을 연결하는 서부 경남 광역패키지 상품 개발, KTO 경남지사와 협력한 경남권 DMO 포럼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는 등 관광권역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